

# 향토장학금 145명에 1억2천만원 지급

## 고성향토장학회 이사회 개최... 24일 오전 10시 군청서 장학금 전달식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이사장 황종국)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기관 관계자 및 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2011년도 장학생 선발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최종학년 성적이 3.5 이상인 자, 고등학교 재학생은 직전학년 평균 교과등급이 4등급 이상인 자, 대학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학년 성적이 평균 교과등급

4등급 이상인 자, 대학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이 3.0 이상인 자 등으로 정했다.

또 이사회 의결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읍면장이 추천하는 대학생 각 1명, 교육감이 추천해 추천교대에 입학하는 학생, 서울 소재 대학생 가운데 성적순위에 들지 못하는 학생 중 일정 인원 등도 선발하기로 했다.

이런 기준을 근거로 올해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55명, 대학생 90명 등 총 145명에 1억2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학금 액수는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원씩, 대학생은 1인당 100만원씩이다. 또 읍면장 추천 학생 5명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은 24일 오전 10시 군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해에는 고등학생 62명, 대학생 88명 등 총 150명에 모두 1억2천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박승근 기자



고성향토장학회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장학생 선발에 대해 심의했다.

## 고성해양심층수로 만든 제품 인기 '짱'

### 천년동안·아라김치·코팅쌀·윤재삼 전통한과·송이주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음매 없는 단일관을 통해 수심 605m 이하에서 취수하는 고성해양심층수로 만든 '천년동안'과 '아라김치' 그리고 '해양심층수 코팅쌀' 등이 웰빙 바람을 타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먹는 해양심층수 '천년동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국제생수협회(IBWA) 등에서 유해영양 무기질인 브롬산염을 포함 100여 항목의 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았다. 특히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칼슘, 칼륨과 같은 무기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또 해양심층수로 만든 '아라김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다양한 미네랄 및 필수 미량원소성분이 김치의 발효를 촉진시켜, 유산균이 풍부할뿐만 아니라 김치를 시어지게 하는 균의 증식을 억제해 아삭거리는 식감과 시원한 맛이 오랫동안 가능하다. 아라김치는 백김치와 포기김치 두 종류가 있다.

'아라김치'는 특히 김치에서 중요한 고춧가루를 HACCP 지정업체에서 생산하고, 함량 검사를 통해 엄선한 고춧가루만 사용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이와 함께 '해양심층수 코팅쌀'은 마그네슘과 칼륨·칼슘·미네랄 등이 풍부하며, 씻지 않고 그대로 밥을 할 수 있는

데다 밥이 찰지고 맛있다는 평을 받아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도 찹쌀을 숙성시키는 과정에 해양심층수를 사용해 미네랄이 풍부한 '윤재삼 전통한과'는 전 과정에 방부제 및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웰빙 상품으로 명절상품으로 손색이 없다.

해양심층수 송이주는 자연산 송이의 성분이 원주에 그대로 함유되어 있고, 생산과정에서 쓰이는 모든 물을 해양심층수로 대체한 차별화된 제품으로 거부



고성해양심층수로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감이 없고 두통과 숙취가 적은 깨끗한 술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식경제부 지정 해양심층수 제품 판매법인인 (주)아라심수는 지역 관련업체와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도우몰(www.dowmall.kr)을 운영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 고성신문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고성신문은 '행복한 고성 만들기·행정과 주민의 가교·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란 창간이념으로 새롭게 창간한 지역 주민들의 신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기구독이 고성신문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① 통장 자동이체
- ② 지로 납부
- ③ 직접 납부(통장, 사무실)

◇구 독 료 : 월 4,000원(1년 선금 4만원)

◇입금계좌 : 농협 301-0072-9350-81

◇예 금 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주식회사 고성신문

문의 ☎033-681-1667